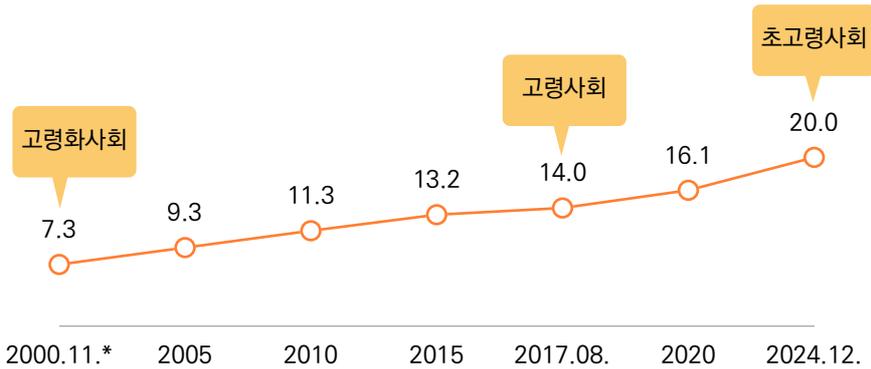




[한국 사회 고령화 실태] 2024년 12월,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

- 한국의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현실화되었다.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7.3%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후 17년 후인 2017년 14.0%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,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져 7년 만(2024.12.)에 20.0%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.
- 참고로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% 이상이면 '고령화사회', 14% 이상이면 '고령사회', 20% 이상인 경우 '초고령화사회'로 분류한다.

[그림]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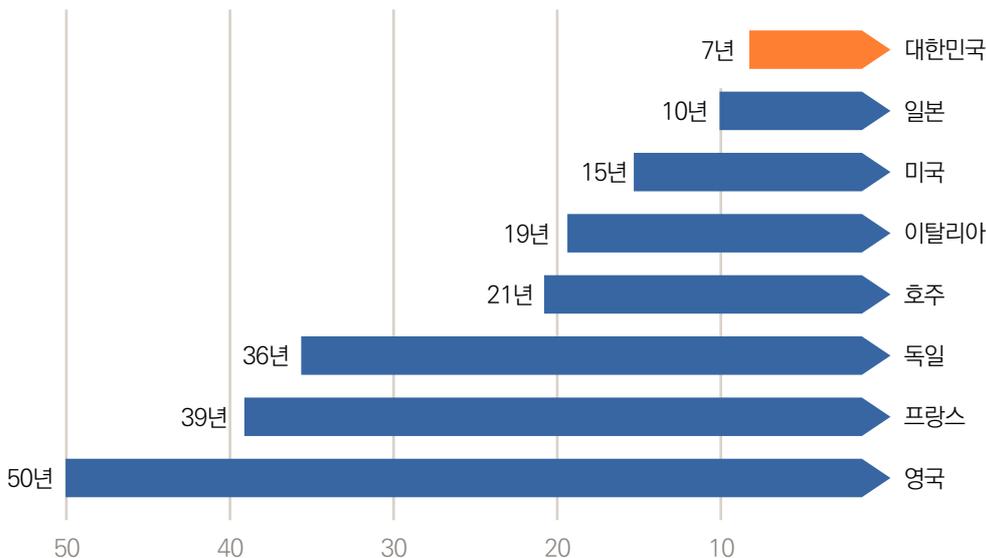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% 기록, 2024.12.24.
*2000년 통계는 통계청 '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' 참조

한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,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!

- 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% 이상)에서 초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 20% 이상) 도달 기간을 살펴본 결과,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7년이었고, 우리보다도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은 10년, 미국 15년, 독일 36년, 영국 50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OECD 주요국 고령사회 →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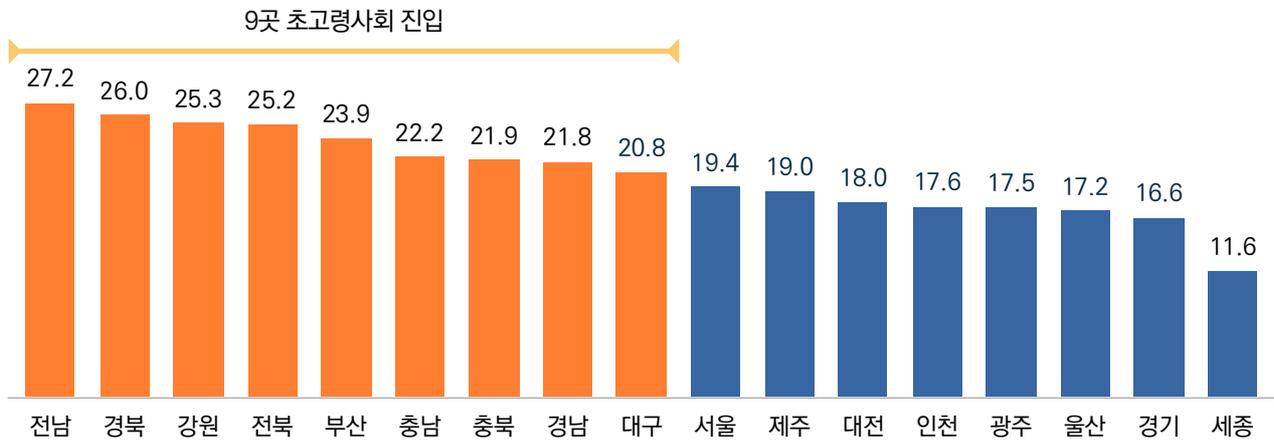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22 고령자 통계, 2022.09.29.
*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서 20%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 기준

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9곳,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

- 광역단체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말 기준,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곳은 65세 이상 인구 20% 이상인 '초고령사회'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.
- 지역별로는 '전남'이 27.2%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, 가장 낮은 곳은 '세종'(11.6%)이었다.

[그림] 17개 광역단체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(2024.12.23. 기준, %)



※출처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% 기록, 2024.12.24.